

합 의 서

남측 대구대학교 및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북측 민족화해 협의회는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다음과 같이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1. 남측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① 평양 조선적십자중앙병원 회복치료과의 치료실 및 병실의 개선을 위한 각종 자재와 설비, 장비 등을 7 월말까지 제공한다.
- ②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에 필요한 기자재와 소모품 등을 회복치료과 치료실 및 병실의 시설개선정도에 따라 빠른 시기에 북측에 제공한다.
- ③ 특히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운동치료 등에 필요한 기자재와 소모품(저주파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복합치료기, 적외선치료기, 온습포치료기, 냉습포치료기, 초옥치료기, 공기압막치료기, 근육타진 맛사지기 등)을 우선적으로 6 월중에 북측에 전달한다. 치료실 및 병실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설자재 및 설비, 공구품목, 장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북측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평양 조선적십자중앙병원의 회복치료과 치료실 및 병실의 개선을 남측이 지원한 건설자재 및 장비를 기초로 하여 빠른 시일안에 완료한다.

② 필요한 시기마다 남측 관계자 및 기술진들의 현지방문과 기술협의를 보장한다.

3. 량측은 평양 조선적십자중앙병원 회복치료실 완공과 관련한 준공식 날자를 차후 협의하여 확정한다. 그리고 쌍방은 장애인분야에서 필요한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다.

4. 사업진행중 필요한 연락은 량측이 합의한 경로를 통해 연락한다.

5. 쌍방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여 이 합의서내용을 추진하며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6년 5월 26일

《대구대학교》를

대표하여

총장

이응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대표하여

새우림이영원 김현

민족화해협의회

위임에 의하여

찬사 리인선

